

취 임 사

친애하는 전국의 양돈가족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오늘의 협회가 있기 까지 각지에서 성원하여 주시고 적극 협력하여 주신 정부와 축산관련 단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역대 회장님을 비롯함 임원·지부장님과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재임기간중 협회조직 활성화와 전양돈인들의 숙원사항이었던 부가 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축산법 개정, 3개소의 검정소 설립, 양돈회관 건립, 가축분뇨의 자원화 추진 등 양돈업계에 많은 업적을 남기신 전동용 전임 회장님의 활동과 노고에 대하여 전국 양돈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정도 고문님을 비롯한 오늘 수상하신 여러분에게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돼지고기가 전면 수입 개방된 데 이어, 숨돌릴 겨를도 없이 터져나온 외환 위기는 한국의 양돈산업을 근본부터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IMF 한파로 사료값이 40%이상 폭등한데 이어, 동물약품과 기자재 등 양돈 생산 원자재값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업친데 덮친 격으로 최근

돼지가격은 생산비를 크게 밀도는 수준으로 양돈 농기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양돈산업은 내우외환의 위기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수입개방시대를 헤쳐나오고, 외환위기를 극복해서 양돈산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굳건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제가 제13대 대한양돈협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은 제 자신의 기쁨과 영광이기에 앞서, 중차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한없이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동안 전국의 양돈인들이 흘린 땀과 정성이 헛되지 않고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양돈협회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진정으로 양돈인과 협회를 위해 봉사하는 참모습을 구현하는데 저의 모든 정성을 바쳐 일해나갈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양돈가족 여러분!

그동안 양돈협회는 짧은 역사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고,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급변하는 세계와의 경쟁에서 양돈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아픔과 함께 우리 모두의 의식전환과 자기혁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시대가 요구하는 책무와 역사 인식의 바탕 위에서 저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각오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양돈업계의 화합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데 정성을 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양돈업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규모간의 갈등과 금이 있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제부터라도 모든 양돈인들이 협회를 중심으로 뭉쳐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양돈산업을 위한 일이라면 누구와도, 언제든지 만나 자문과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양돈인들이 화합하고 하나로 뭉칠때만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양돈산업을 성장산업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또한 재임기간중 전양돈인들의 숙원사항인 무임승차자 없는 자조금제도의 법제화를 위해 매진해 나갈 각오입니다. 세계는 가트(GATT)체제가 붕괴되고, WTO 체제가 출범한 현시점에서 정부 주도로 양돈산업을 발전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늦은 감이 있지만, 산업의 주인인 양돈인들의 자구책 마련을 위하여 전 양돈인들이 동참하여 자조금으로 양돈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밖에도 돼지분뇨 처리시설 자금의 보조 확대와 축산 정책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자기배합 사료 생산과 이용의 확대, 종돈 검정업무와 등록 업무의 일원화, 양질의 돼지고기 생산을 통한 수출 증대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고, 양돈산업을 국제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돼지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종 연구와 사업을 활발히 전개해서 2만7천여 양돈농기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차대한 책무를 수행하는데에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으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정부당국과 축산관련,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성원과 우리 협회 전현직 임원 및 지부장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의 뒷받침과 동참, 그리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희생도 감내해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내외귀빈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아낌없는 협력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양돈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은 양돈업계의 일꾼일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양돈산업이 단순히 양돈인들의 소득증대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개발과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양돈업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하여 어렵고 힘든 IMF의 긴 터널도 하루 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합시다.

끝으로 공시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이처럼 멀리까지 왕림하여 주신 내빈 여러분과 양돈 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養豚**

1998년 5월 6일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회장 최 상 백